

금융브리프 포커스

최근 세계 교역 및 우리나라 수출 현황 점검

송민기 선임연구위원 | 02-3705-6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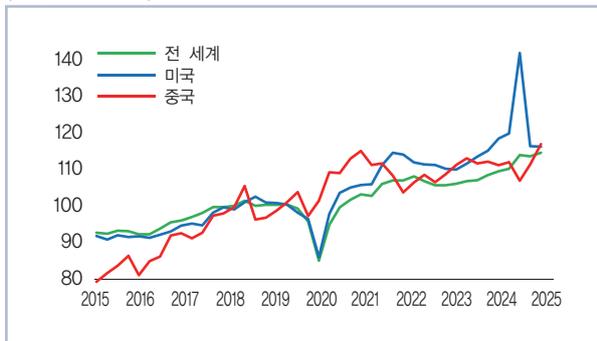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선행선적 움직임과 AI 관련 투자 증가에 따라 올해 세계 교역 규모는 예상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이러한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내년 세계 교역 증가율은 올해보다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품목의 수출물량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마진 축소 등을 통해 수출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수출구조 전환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IMF와 WTO를 비롯한 전망기관들은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내년 세계 교역 증가율을 올해보다 한층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
 - 10월 수정전망에서 IMF는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대비 1.0%p 높은 3.6%로 상향조정하였고, WTO는 상품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보다 0.9%p 높은 2.4%로 상향조정하였음.
 - 이를 반영하여 IMF 전망에서 올해 대비 내년의 세계교역 증가율 둔화폭은 기존 $\Delta 0.7\text{p}$ 에서 $\Delta 1.3\text{p}$ 로 확대되었고, WTO의 경우에는 내년 상품교역 증가율이 올해보다 0.9%p 높아진다는 기존 전망을 철회하는 대신 오히려 내년 증가율이 올해보다 1.9%p 둔화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았던 것은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선행선적(front-loading) 움직임과 AI 관련 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WTO는 분석하였음.
 - 올해 전 세계 상품수입 물량지수는 기존 추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며, 특히 미국의 1분기 상품수입물량은 전기대비 18%의 이례적인 증가율을 일시적으로 기록한 바 있음.
 - WTO 분석에 의하면, AI 관련 교역이 전체 교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올해 상반기 세계교역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4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AI 관련 교역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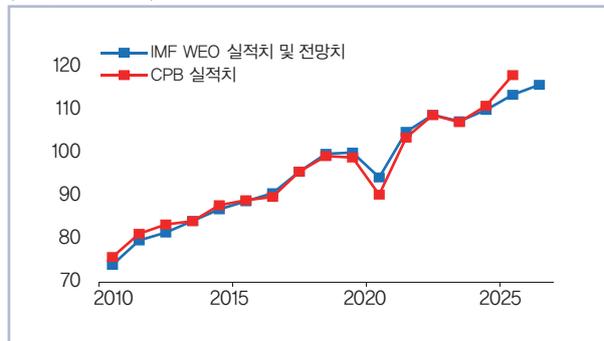
- 세계 교역 증가율의 실적치(CPB 기준)와 전망치(IMF 기준) 간 격차는 향후 예상되는 세계 교역 둔화폭을 반영하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적시성이 높은 지표로 평가되는 CPB World Trade Monitor의 전 세계 상품수입 물량지수는 장기간 IMF의 상품수입 물량지수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 바 있으나, 올해 1~8월 기준 CPB 시계열의 실적치와 IMF 전망의 교역 성장 경로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임.
 - 이미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 세계 교역 실적치에도 불구하고 IMF가 최근 10월에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부진한 성장 경로 전망을 제시한 것은 해당 격차가 소멸되는 방향으로 향후 세계 교역이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 연준이 주요국 과거 사례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예상보다 큰 순수출에 의한 일시적 성장이 소멸되고 나면 잠재되어있던 경기 부진이 드러나는 경향성이 확인된 바 있음.¹⁾

<그림 1> 분기별 전 세계 및 미중 상품수입물량
(단위 : 2019=100)



주 : 2025년 관측값은 7~8월 기준
자료 : CPB World Trade Monitor

<그림 2> 전 세계 상품수입물량 실적치 및 전망치
(단위 : 201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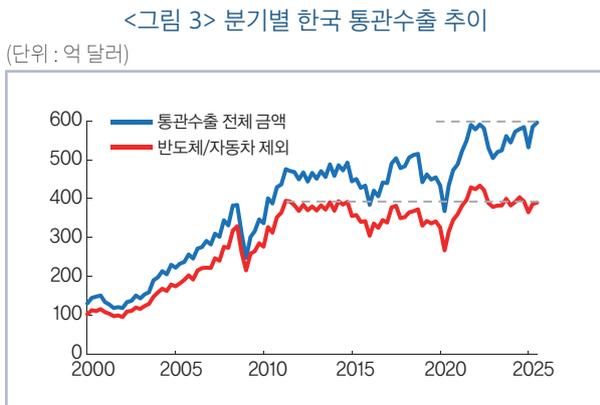


주 : CPB 시계열 2025년 실적치는 1~8월 기준
자료 : IMF, CPB World Trad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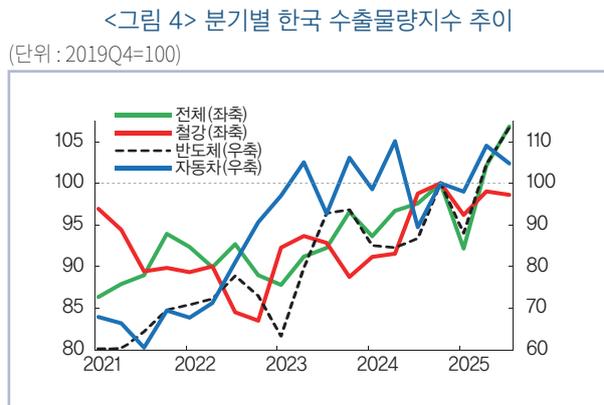
1) de Soyres et al. (2025), "Racing Against Tariffs: Global Impact of Frontloading", FEDS Notes.

- 우리나라 통관수출 및 무역수지의 주요 하방위험과 관련해서는 특히 반도체 및 자동차 부문의 교역 여건 악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전체 통관수출 금액은 2020년 이전 대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통관수출 금액은 2010년대 초반 수준에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2020년 이후 통관수출 금액의 비약적 증가를 견인한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과 관련된 교역 여건이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악화될 경우 통관수출 부진 및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될 수 있음.

- 다만, AI 반도체 관련 교역 여건이 호조를 나타내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충격이 자동차와 철강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품목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AI 투자 관련 견조한 글로벌 수요를 배경으로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내면서도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지속하면서 수출물량 총지수를 높은 수준으로 견인
 -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전까지 부과되었던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물량지수는 2024년 상반기 전고점과 유사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냄.
 - 최고 50%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 부문의 최근 수출물량도 트럼프 취임 이전인 작년 4분기 대비 감소율이 1.4%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황임.
 -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 3분기 영업이익 악화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마진 축소 등을 통해 악화된 수출 여건에 대응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F**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은행